

블랑팡 X 스와치, 피프티 패덤즈 70 주년을 기념하는 획기적인 협업

블랑팡이 스와치(Swatch)와 함께 전설적인 피프티 패덤즈 다이빙 워치를 유쾌하면서도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은 다섯 가지의 바이오세라믹 스쿠버 피프티 패덤즈 모델을 통해 블랑팡이 보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해양을 기념합니다.



블랑팡과 스와치가 손을 잡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와 우수한 기술력이 어우러진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스와치 그룹의 블랑팡과 스와치는 90 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기계식 무브먼트와 혁신적인 바이오세라믹 방수 시계라는 두 브랜드의 장점을 결합하여 푸른 지구의 오대양을 담은 다섯 가지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블랑팡과 스와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바이오세라믹 스쿠버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은 다섯 가지 시계로 구성됩니다. 각 모델은 블랑팡이 진심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다섯 개의 해양을 상징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선택은 피프티 패덤즈였습니다. 블랑팡이 70년 전에 선보인 피프티 패덤즈는 혁신적인 워치메이킹 기술로 달성한 최초의 진정한 다이버 워치입니다.

웹사이트: <https://www.blancpain.com> / 프레스 라운지: www.blancpain.com/ko/press-lounge

다섯 가지 블랑팡 X 스와치 시계는 2/3는 세라믹으로, 1/3은 캐스터 오일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융합하여 특허를 받은 고유의 바이오세라믹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이는 컬러는 전통적인 블랑팡 시계와 차이가 있지만, 블랑팡의 팬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피프티 패덤즈만의 아이코닉한 기능과 특징이 스와치 스쿠버 컬렉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와치 버전에서도 오리지널 케이스와 다이빙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단방향 회전 베젤을 비롯해 자기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Nivachron™ 안티마그네틱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된 SISTEM51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와 같은 피프티 패덤즈의 주요 특징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블랑팡의 회장이자 CEO인 마크 하이에크(Marc Hayek)에게 이번 협업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는 "스와치가 없었다면 스위스 시계 산업은 생존하지도, 이렇게 멋진 운명을 즐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컬렉션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블랑팡과 같이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함께하고 싶었던 바람이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와치는 블랑팡의 아이코닉한 모델을 고유의 방식과 비전으로 눈부시게 재해석했습니다. 다이빙 애호가로서 피프티 패덤즈를 떠올리게 하는 컬렉션 디테일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91m 방수 기능은 수심 측정 단위인 패덤, 그리고 50 패덤즈를 정확하게 표시한 환상적인 상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3년 피프티 패덤즈를 재출시한 바 있는 마크 하이에크는 민달팽이를 기념한 SISTEM51 기계식 무브먼트 로터의 디테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바다 생물들은 자연의 경이입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이 생물들의 독특한 모양과 반짝이는 색을 관찰하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평온하고 차분하게 만듭니다. 블랑팡은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과학 탐사를 공동으로 지원했고, 전 세계의 해양 보호 구역을 두 배로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새로운 컬렉션은 피프티 패덤즈에서 볼 수 없던 컬러로 블랑팡의 아이코닉한 다이버 위치에 유쾌한 분위기를 불어넣습니다. 각 모델의 다이얼과 크라운에는 고유의 인그레이빙과 Blancpain X Swatch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스트랩은 바다에서 수거한 어망을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바이오세라믹 스쿠버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은 9월 9일부터 전 세계 일부 스와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블랑팡 부티크에서는 컬렉션 모델들이 특별한 다이빙 케이스와 함께 몇 주간 전시될 예정이며, 판매되지 않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70년 전, 아이콘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피프티 패덤즈입니다. 워치메이킹 세계에 혁신을 가져온 이 최초의 진정한 다이버 워치는 열정적인 스쿠버 다이버이자 블랑팡의 공동 CEO였던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이빙을 막 시작했던 그는 물속에서 시간을 쬐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디자인한 도구는 군과 민간 다이버들의 즉각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들의 절대적인 동반자로 떠올랐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안전을 향상시킨 것은 물론 다이빙 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하고 해양 탐사에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블랑팡은 지난 70년간 해양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이 연결 고리는 해양 보존을 위한 블랑팡의 헌신에 촉매제가 되어 왔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7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은 이를 기념하는 여러 혁신적인 다이버 워치를 통해 피프티 패덤즈의 탄생을 재조명합니다. 스와치와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또한 이에 대한 기념입니다.

침묵의 세계

영화감독 루이 말(Louis Malle)이 공동 제작한 <침묵의 세계(The Silent World)>는 195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에 생물 다양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이버 팀이 피프티 패덤즈 시계를 착용했으며, 이 덕분에 바닷속에서도 긴 시퀀스를 촬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블랑팡은 1953년 최초의 진정한 다이버 워치인 피프티 패덤즈를 출시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 다이버는 물론 아마추어 다이버들까지 피프티 패덤즈의 기발한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을 극각 알아보고 신뢰를 표했습니다. 블랑팡과 심해 탐험가, 탐사가, 해양학자, 수중 사진작가와 같이 바다를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바탕으로 블랑팡은 해양 탐사, 보전 및 보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기를 공유하는 이들과 함께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창립 파트너로서 다수의 환경 이니셔티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에는 프리스틴 시즈(Pristine Seas) 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랑팡은 5년간의 지원을 통해 전 세계에서 4백만 평방 킬로미터 이상에 달하는 새로운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블랑팡은 오늘날까지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프로그램으로 20개가 넘는 과학 탐사를 공동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의 해양 보호 구역을 두 배로 늘리는 데 기여했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로 여러 차례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중 사진 전시회를 주최하고 다수 출간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해양 탐사와 보호에 대한 이러한 기여는 블랑팡의 상당한 연간 기금에 더해 시계 한 피스당 1,000 유로의 추가 기금이 조성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판매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https://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자료 다운로드: <https://swat.ch/BlancpainxSwatch>